

MVP 2014.SUMMER(No.40)

벤처선교

MVP선교회 홍보 특집

불굴의 선교정신

전방개척선교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MVP | MVP선교회의 전방개척선교

벤처선교사역개발원 |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 훈련, 동원팀

3사원 훈련 프로그램



그림_김민숙 간사

전방개척선교를 고집하는 자들의 발걸음.

1998년, 미전도종족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3명의 청년들은

선교사가 거의 없는 전방개척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으로 향한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MVP선교회는 전방개척지역 사역을 고집하며 오늘도 나아간다.

CONTENTS

MVP 2014. SUMMER(No.40)



COVER STORY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골15:2)

- 02 그림묵상 | 김민숙
- 04 불굴의 선교정신 | 신동우
- 05 전방개척선교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MVP | 한수아
- 07 MVP선교회의 전방개척선교 | 이갈렘
- 12 벤처선교사역개발원 | 구영삼
- 14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 김홍빈
- 16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 김인애
- 18 훈련, 동원팀 | 장승리
- 20 선교사 소식 및 본부후원자
- 21 MVP선교회 소식
- 22 훈련 프로그램 안내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신동우 | 실행이사 이종훈 이훈민 조명순 지경준 최웅섭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후원이사 김만형 박삼열 성덕수 조상현 조흥식 정우길
본부장 한수아 | 총무 이갈렘 장승리 |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 부원장 김승관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이영배
본부간사 권선주 김단비 김민숙 김수정 문현식 조윤희 최현미 | 협력간사 김아영 손인종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한수아 | 편집·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 웹진 편집 권선주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4년 7월 4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트위터 @mvpkorea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불굴의 선교정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대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위한 최전방 선교를 위하여 MVP선교회는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힘찬 발걸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전방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정병으로 자리해 주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은 감사를 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MVP선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MVP 가족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이기에 MVP선교회와 작은 인연을 가진 후원 교회와 개인 후원자 모두를 가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MVP선교회의 최종 목적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넘는 MVP선교사들이 최전방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추방을 당해도 다시 도전하는 불굴의 선교 정신은 MVP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MVP선교회는 영성과 지성, 선교현장을 겸비하신 이사님들의 수고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감당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본부 사역 또한 최선의 수고와 헌신으로 선교회 내실을 단단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까지 300명 파송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힘차게 급속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MVP선교회의 특징은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원 소식,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는 겸손한 가족들입니다. MVP 세계선교대회와 총회를 계기로 더욱 성숙한 선교단체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MVP 가족 여러분! 선교의 행복감으로 매일 매일이 가치와 보람으로 채워지고 전방개척지역에서 십자가의 깃발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렘, MVP**



전방개척선교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MVP

한수아 선교사 / MVP선교회 본부장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쓴 김정태씨는 스펙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스펙이 아닌, 남들과 다른 스토리를 쓰라고 한다. 그는 ‘최고(the Best)가 아니라, 유일함 (the Only)으로 승부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성공을 단념하자 성장하기 시작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다.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로 나아갔다. 상품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다. 욕망을 내려놓자 민족이 찾아왔다. 경쟁을 피하자 공존이 가능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경청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다. MVP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단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한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는 선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스토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클라이맥스와 함께 결말을 맺는 스토리다. 우리는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쓰려고 하시는 스토리가 있다고 믿는다.

1998년 선교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3명의 젊은이가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당시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AAP)대표였던 한정국 선교사를 찾아가 상담한다. 한정국 선교사는 그들의 순수한 헌신과 젊은 패기를 담은 새로운 선교단체를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이 유행할 당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벤처적인 선교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MVP(Mission Venture Partners, 벤처선교회)라고 부르게 된다.

그 헌신된 젊은이들은 훈련을 받고 그 당시 선교사가 거의 없는 개척지였던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으로 떠난다. 또 다른 MVP선교사는 중국의 카자 민족 가운데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사의 발걸음은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해발 3500미터 이상의 산지 티벳으로, 베트남과 미얀마로, 강력한 무슬림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와 초승달지역과 북아프리카로 이어지게 된다. 2014년 현재 100명의 선교사가 미전도종족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

MVP의 선교회의 로고를 보면 MVP가 뜻을 넓게 펴고 향해하는 배처럼 보인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고 선교하는 전략적인 단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며 리서치와 비즈니스, 청년 대학생들의 단기선교운동이라는 파도를 타는 선교회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바로 3M선교였다. 비즈니스, 리서치, 캠퍼스선교사들이 팀사역을 통해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다.

2003년 첫 번째 선교사 대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렸다. 십 여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한 선교에 헌신된 비즈니스맨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3M선교의 한 축인 비즈니스선교가 시작되도록 그를 중심으로 MVP내에 한 기관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비즈니스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벤처선교사역개발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이 세워지면서 3M선교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시 MVP로고를 보라. 그것은 한편으로 MVP에 내리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계선교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받았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가 담당한 임무는 쉽지 않다. 우리의 사역지는 강력한 영적 전쟁터이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인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복음에 무장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는 소위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사역자를 길러내야 한다. 선교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동행의 스토리가 있는 사역자들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지적 능력이나 학문적 소양, 직업적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의 자질과 영성이다. 유명한 순회침례교자인 폴 워셔 목사는 '대부분 환경적인 준비나 열정만 가지고 일생을 헌신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교를 나가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교지는 당신의 회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선교지에 써내려가야 한다.

개척선교를 선택한 우리의 이야기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우리 단체에는 정치적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야 했거나 오랫동안 준비하던 선교지에 못 들어간 선교사들이 많다. 눈에 띄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선교지에서 인내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환경속에서 남들이 인정할만한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MVP



MVP선교회의 전방개척선교

이갈렙 선교사 / MVP선교회 총무

선교의 전방(Frontier)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방개척선교'를 다양한 영역에서 다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창립 당시부터 전방개척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MVP선교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필자는 '전방개척선교'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타문화권 전도가 필수적이고, 선교적 돌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나 미전도종족'을 '선교의 전방'으로 인식하고 이 전방을 개척하여 '토착적인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을 성취하는' 선교적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을 '전방개척선교'로 정의한다. 전방개척선교에는 비즈니스, 선교동원, 리서치, 엔지오, 의료 등 다양한 영역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방개척선교의 핵심은 미전도종족 선교이며 미전도종족 선교의 개념이 빠진 전방개척선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방개척 지역이란 미전도종족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MVP선교회의 Operation 300 운동과 10개 전방개척권역 및 전방개척선교의 영역

MVP선교회는 2010년 제3회 선교사총회에서 2020년까지의 향후 10년간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10개의 전방개척권역을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이 권역에 집중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MVP선교회가 정한 10개 권역은 초승달, 중앙아시아, 페르시아1(이란), 페르시아2(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무슬림, 인도차이나반도, 티벳, 북인도무슬림, 아라비아반도, 북아프리카 권역이다. 이 권역들은 모두 10/40장에 속한 곳이며 선교사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창의적 접근지역들이다.

1) Operation 300 운동

제3회 선교사 총회(2010년)에서 MVP선교회는 Operation 300 운동을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3M선교사 300명을 10개의 전방개척지역 및 영역에 파송하여 미전도종족 내에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킨다'고 결의하였다. 당시(2010년) MVP선교회의 파송선교사 수는 73명이었고 4년이 흐른 2014년 현재 MVP 파송선교사 수는 100명으로 증가하였지만 목표로 설정한 300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300명이라는 파송 숫자를 채우는 것이 Operation 300 운동의 핵심은 아니다. Operation 300 운동의 핵심은 10개 전방개척권역에 MVP선교회의 역량을 집중시키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만약 MVP선교회가 Operation 300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파송선교사를 보유한 선교단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Operation 300 운동을 시작한 후로 지난 4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MVP선교회는 이 운동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선교사 파송 지역을 한정하여 왔고 이 원칙에서 벗어난 선교사는 허입하지 않았다. 전방개척선교를 지향하는 MVP선교회는 앞으로도 이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 10권역

페르시아1 권역은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이란에서는 소수의 사역자가 거주하며 사역하고 있고 비거주 비즈니스 사역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 추방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현재는 터키와 말레이시아 내 이란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향후 터키에서는 이란 난민 교회 개척과 이란/아프간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Mission Planting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페르시아2 권역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타지키스탄은 타지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13년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201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개척하는 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현재는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인도무슬림 권역은 북인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의 수는 매우 적지만 MVP선교회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2012년에 리서치 팀을 보내어 북인도무슬림 선교를 연구하고 북인도선교대회를 가진 바 있었다. 앞으로도 활발한 선교사 파송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도차이나반도 권역에서 MVP선교회는 현재 베트남과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문서사역/신학교사역과 직장인으로서의 사역과 또한 비즈니스 사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국무슬림 권역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 지역의 무슬림 종족인 카자크족과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개척 운동과 Mission Planting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티벳불교 권역은 중국 내 티벳 종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한 규제로 현재는 티벳 자치 지역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외곽에서 티벳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향후 중국 한족들을 훈련시켜 간접 사역을 진행해야하는 도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권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하며 오래 전에 추방으로 파송 선교사가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국가에서는 리서치, NGO, 교회개척, 비즈니스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초승달 권역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요르단과 시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나 내전 이후 인근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흩어져 각각 시리아 난민과 쿠르드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아라비아반도 권역은 7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MVP선교회는 현재 오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아라비아반도 네트워크이 2009년 결성될 당시 MVP선교회는 리서치 활동으로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고 현재도 오만과 UAE 기도 책자 발간 등 활발한 리서치 선교 활동으로 이 권역 선교 동원에 기여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권역은 북아프리카 자스민 혁명 이후로 최근에 개척된 권역으로서 현재는 모로코와 이집트에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고 모리타니는 개척 지역으로서 부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집트에는 청년대학생 선교사 동원을 위한 M센터가 세워져 요셉스쿨이 진행되고 있다.



3) 전방개척 영역

위의 10년역 외에도 MVP선교회는 전방개척선교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전방개척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교회개척에 나서고 있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선교사 개인의 사역 특기에 따라 비즈니스와 리서치 영역에 파송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영역이 비즈니스사역이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일부 현장 내에서 거주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비즈니스 특성 상 대다수가 비거주로 사역하거나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영역이 리서치 사역이다. 리서치 사역의 특성상 현장 선교사가 대부분이고 일부가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NGO와 의료사역이 중요한 선교 영역이며 향후에는 선교동원 영역과 행정 영역이 중요한 전방개척선교사 파송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다.

2. MVP선교회의 핵심 전략 - '벤처선교'와 '3대 선교'

1) 벤처선교 - Venture Mission

MVP선교회는 '벤처선교'를 21세기의 남은 선교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개척적이고 모험적인 정신을 가진 미전도종족선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MVP선교회의 Venture 정신을 담고 있는 '벤처선교'는 미전도종족 선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전방개척선교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모험'과 '도전'과 '개척'이라는 진취적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선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벤처선교'는 '헌신과 충성', '모험과 개척', '창조와 변혁'이라는 3대 정신에 입각하여 전방개척지역 내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서 리서치에 바탕을 둔 '전략선교', 복음에 소외된 곳을 향해 도전하는 '개척선교', 관문도시를 통해 미전도종족 내에 교회를 개척하는 '관문도시선교', 전방개척선교의 비전/전략을 가진 3가지 유형의 선교사(RM, CM, BM)가 유기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는 '팀워 선교'라는 특성을 갖는다.

2) 3M 선교 - Partners 정신

위에서 언급한 벤치선교의 여러 특성들이 개념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3M 선교'는 벤치선교의 특성들과 개념들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MVP선교회는 전방개척지역 내 벤치선교사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1) 전문적으로 지역과 종족을 연구하는 '리서치선교사(RM)', 2) 도시에 거주하면서 젊은 이들의 제자화와 교회개척에 집중하는 '캠퍼스/교회개척 선교사(CM)', 3)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 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하는 '비즈니스 선교사(BM)'. 비즈니스 영역 안에는 NGO도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선교사들을 총칭하여 3M이라 부르며 이 3M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전도종족 내에 토착적인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키는 전략적 팀워크 선교를 '3M 선교'라 부른다. 이 '3M 선교'는 MVP선교회의 Partners 정신을 담고 있다.

MVP선교회는 '3M 선교'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본부 산하에 각 유형의 선교를 위해 기관을 두고 있다. BM을 위해서는 벤치선교사역개발원(벤사원)이, CM을 위해서는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캠사원)이, RM을 위해서는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리사원)이 운영되고 있다. 벤사원은 비즈니스, NGO, 의료 및 상담, 시니어, 문화 사역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인 벤치사역을 창출, 지원, 운영함으로써 선교의 토대를 구축하여 교회개척운동에 동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사원은 올해 초 전문 BM을 양성하기 위해서 벤사원 스쿨을 시작하였다. 캠사원은 캠퍼스와 교회개척선교 전략을 구체화하여 청년/대학생들을 전방개척지역으로 동원 및 파송하여 선교지에서 캠퍼스 사역을 일으키고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 벤치선교사와 공동으로 M센터를 세우고 요셉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리사원은 10개 권역 내 미전도종족과 관문도시를 연구하여 선교동원을 일으키고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수립되어 전방개척지역에서 교회개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에 북인도 지역을 리서치하였고 올해는 터키와 이란 쿠르드를 리서치하였다. 캠사원과 리사원도 벤사원의 벤사원스쿨처럼 전문선교훈련을 시키는 훈련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개개의 선교사가 엄밀하게 3M 선교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선교사가 RM과 CM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BM과 CM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는 홀로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은사별로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MVP선교회의 4대 본부장 '허드슨' 선교사는 짧은 패기를 가지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구호를 MVP선교회 내에 정착시켰다. 이 구호는 MVP선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미전도종족 내에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전방개척선교의 기치를 들겠다는 거룩한 결단이며, 주님이 계신 곳에서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의 어떤 장벽이라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MVP선교회의 믿음의 선포인 것이다. 이 믿음의 구호를 주님이 선히 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 글을 마친다. MVP

벤처선교사역개발원

(벤사원, Venture Mission Institute)

구영삼 선교사 / 벤사원 원장

벤사원은 벤처선교 전략(비즈니스사역, NGO사역, 의료 및 상담사역, 시니어사역, 문화사역 등)을 구체화하여 창의적 접근지역과 미전도종족 대상 벤처선교를 위한 연구 및 실제적인 벤처사역을 창출, 지원 및 운영함으로써 선교의 토대(platform)를 구축하며, 종족단위의 교회개척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에 동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많은 전문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각 영역을 선교로 동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사원의 조직은 원장과 운영위원, 실무를 섬기는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구성원은 시니어 모임과 주니어 모임, 두 개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하며, 비즈니스 선교사역을 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시니어 모임은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 비즈니스를 선교로 동원하기 원하는 분들과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시니어선교사로 비즈니스선교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니어 모임은 비즈니스 경험은 없거나 적지만, 자신을 비즈니스 선교사로 드리기 원하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같이 교제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향후 비즈니스선교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비즈니스 펀드를 조성하는 일도 하고 있다.

벤사원은 원래 벤처선교의 다양한 사역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2003년 여름 제1회 MVP선교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해 12월에 태어났다. 시작부터 MVP선교회는 전방개척선교를 위해 3M전략, 즉 교회개척을 담당하던 캠퍼스선교사(CM), 지역 및 종족 리서치를 위한 리서치선교사(RM),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선교사(BM)를 파송하여 팀으로 사역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분되고 다양한 사역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리서치 사역을 담당할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캠퍼스선교사역을 담당할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이 세워져, 벤사원은 비즈니스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에 들어와 비즈니스 선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벤사원스쿨(V-School)을 시작하였다. 훈련대상은 벤처선교학교(SVM, School of Venture Mission) 수료자, 또는 비슷한 자격을 갖춘 분들 중 비즈니스 선교사를 지망하는 분들이다. 훈련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총 4개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즈니스의 전문가이면서 또한 헌신된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단기간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개발해 가고 또 평생을 사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력관리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분명한 지 먼저 분별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지식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사 경력관리 및 시니어와 주니어를 연결하여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로 이양하는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시니어를 통해 도제식으로도 훈련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훈련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한다.

벤사원은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추구하면서, 또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동시에 완수하는 두 가지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주인 킹덤컴퍼니(Kingdom Company)를 세우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일으키며, 그 기반을 통해 선교지의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벤처선교 사역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영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21세기의 선교의 키워드는 복음의 불모지를 돌파하는 '전방개척선교'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선교가 시도되고 있지만 창의적 접근지역의 선교 현장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선교지원은 부족하다. 기존에 시도했던 선교방법들은 벽에 부딪히고 선교사가 입국조차 거부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선교적 돌파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가고 있다. 비즈니스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MVP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캠퍼스원, Campus & Church planting Mission Movement)

김홍빈 선교사 / 캠퍼스원 원장

1.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소개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이하 캠퍼스원)은 MVP선교회 산하기관인 벤처선교사역개발원,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과 함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전방개척선교를 일으키는 MVP선교회의 산하기관이다.

캠퍼스원은 2012년 1월 발족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캠퍼스원은 전방개척 선교지에 꼭 필요한 캠퍼스/교회개척 사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와 예배(열방콘서트)를 통하여 청년 선교지원자들을 전방개척선교에 참여하게 하며, 캠퍼스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훈련시켜 전방개척 선교지에 6~24개월간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 하고 있다.

2. 전방개척 선교지에서 캠퍼스 사역의 가능성과 사례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지역들이 정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다는 것이었다. 전방개척지역들은 30세 미만의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무슬림들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도 젊은 인구들이 많을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은 알라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서구 문화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급속히 세속화된 세대들이다. 한국과 같이 발달된 캠퍼스 문화는 없지만, 대학생들은 확실히 외부 세계와 변화에 대해 열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필요하다.

2012년 이란에 3명의 단기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들 모두 대학생들로 학업을 병행하며 6개월간의 MVP선교회 훈련 과정(SVM, VIT 훈련)을 마친 후 이란의 '까즈빈'이라는 지역으로 파송되었다. 이들은 1년 동안 언어를 배우면서 현지선교사들을 돕고 현지의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는 사역을 했다. 2014년 6월 현재 3명의 청년들이 전방개척지역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캠퍼스 사역뿐 아니라 교회 개척, NGO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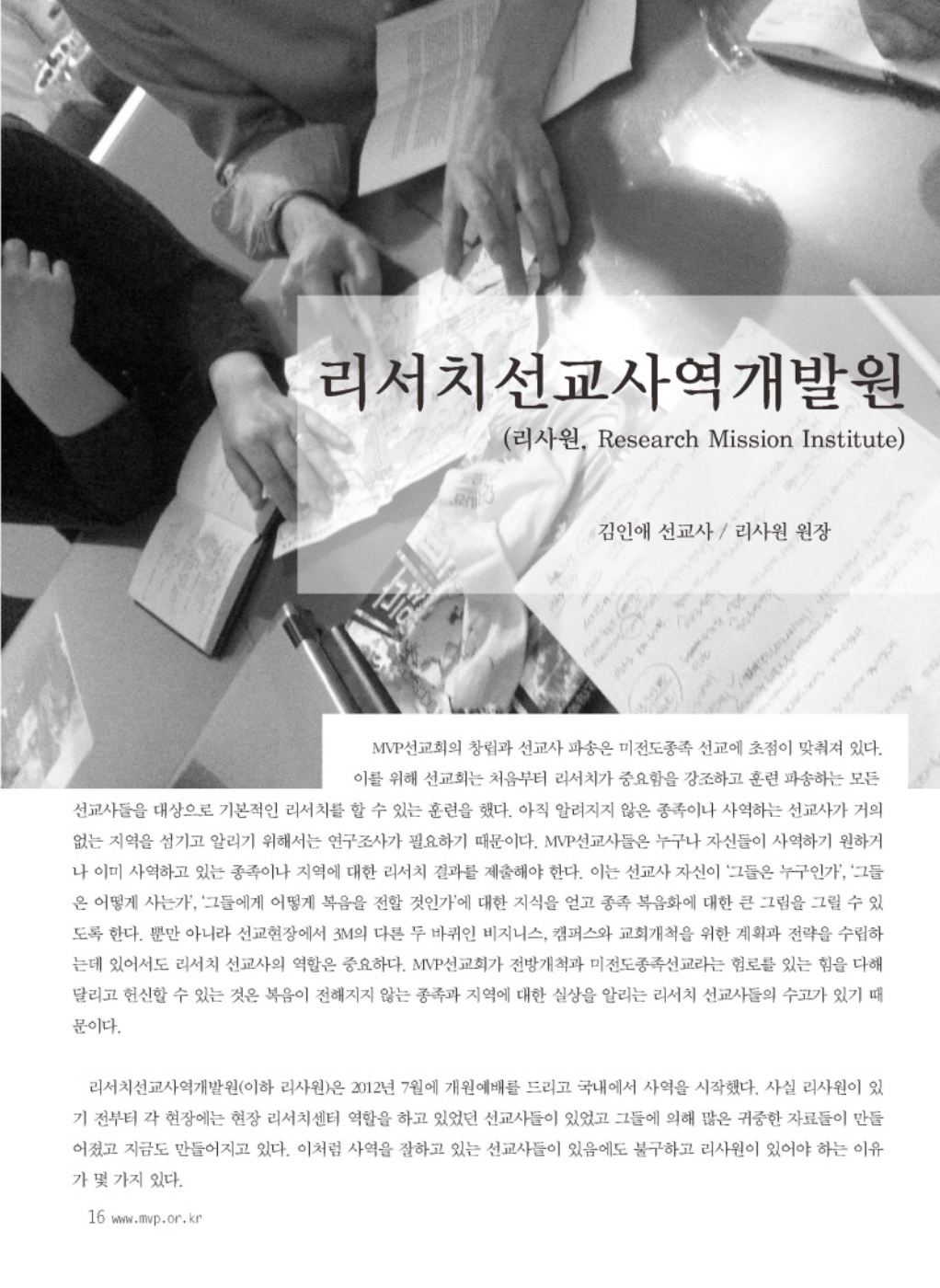
현재 이집트의 요셉학교를 통해 북아프리카와 중동 무슬림권 장·단기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교회개척선교사를 훈련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캠퍼스의 향후 계획

캠퍼원은 "2015년까지 3M 단기선교사 100명을 10개의 전방개척권역에 파송하여 미전도종족 내에 캠퍼스 교회개척운동을 일으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교회개척학교(Glocal Church Planting School)'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교회개척학교는 국내교회와 해외교회에서 1년 내에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재를 훈련시키고,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회 개척배가운동이 국내와 전방개척지역에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훈련은 한국의 선교적 교회와 단기선교사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개척은 단순히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는데,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었다. 비전은 크지만 구조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젊은이들과 대학생을 통해 중국과 이란 땅에서처럼 다른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길 원한다. 2015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할지라도 이 비전을 가지고 매년 6개월 단위로 훈련생들을 모집하여 리더십을 전수해 나갈 때 교회개척운동은 분명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그 일에 캠퍼원은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여 질 것이다. MVP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리사원, Research Mission Institute)

김인에 선교사 / 리사원 원장

MVP선교회의 창립과 선교사 파송은 미전도종족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선교회는 처음부터 리서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훈련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족이나 사역하는 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을 섬기고 알리기 위해서는 연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MVP선교사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사역하기 원하거나 이미 사역하고 있는 종족이나 지역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선교사 자신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종족 복음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3M의 다른 두 바퀴인 비즈니스, 캠퍼스와 교회개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리서치 선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MVP선교회가 전방개척과 미전도종족선교라는 험로를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과 지역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리서치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이하 리사원)은 2012년 7월에 개원예배를 드리고 국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사실 리사원이 있기 전부터 각 현장에는 현장 리서치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역을 잘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사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셋째, 이미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서치 선교사들을 더 잘 돕고 케어하기 위함이다. 리서치선교사라고 해서 리서치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장기간 사역하는 리서치 선교사들은 리서치를 다른 사역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화하는 선교지 상황을 끊임없이 알리고 좀 더 깊은 차원의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리사원은 그들을 도전하고 돕는다. MVP선교회는 본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R&D 기금을 따로 적립해왔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장 선교사들이 리서치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절한 심사를 통해 R&D 기금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할 것이다.

둘째, 선교사들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MVP선교회는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교해야 할 10개의 권역을 선정했다. 하나의 권역에는 한 나라가 속해 있기도 하고, 여러 나라가 한 개의 권역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권역에 속해 있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권역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선교지 리서치이다. 리사원에서는 MVP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장 선교사들과 함께 필요한 주제의 리서치를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북인도 이슬람 상황과 무슬림 선교현황 파악'을 위한 리서치를 했다. 북인도 리서치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함께 진행했으며 리서치 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북인도무슬림 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렸다. 그 이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소수의 선교사만이 사역하는 북인도무슬림들을 향해 새롭게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북인도로 스스로 재배치되어 나가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이란과 터키의 쿠르드족 리서치를 실시했다. 선교지 리서치는 주로 홍보/동원과 전략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넷째, 선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필요한 리서치를 한다. 리사원에서는 2013년에 MVP선교사 사역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했다. 2013년 리서치는 국내에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현장 선교사들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리서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역 사례들을 수집하여 선교회와 선교사들이 서로의 사역을 공유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려 한다.

리사원에서는 지금까지 SVM과 VIT등 선교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학교에서 리서치 훈련을 실시해왔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전문적인 리서치훈련을 받고자 하는 선교회 내 선교사들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훈련학교를 연다. 훈련은 On the job training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 리서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지까지 가서 리서치를 해야 하나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선교 리서치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만들어 준 음식을 먹어보고, 가방끈이 짧은 그들의 이야기를 얼굴을 마주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을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할 때 현장성과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리사원은 굳이 선교지 리서치를 위해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MVP

13년 전, 주님께서 처음 선교 비전을 주실 때가 생
각난다. 예수님이 날 자유하게 하셨음을 경험하던 그 때,
주님을 위한 열정이 솟아오르던 그 때에 주님은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선교는 나와는 무관한 몇몇 헌신된 소수
가 하는 특별한 사역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 선교 훈
련이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첫 번째 강의의 제목부터 선
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후 이란과 아제르
바이잔 선교여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찾아갔고 지
금은 선교사가 되었다.

훈련, 동원팀

장승리 선교사 / 훈련, 동원 총무

MVP선교회의 선교훈련은 한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훈련이 되길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
실 때 사용하시는 훈련이 되길 기도한다. 그 훈련을 기억하며 그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전방개척지역과 남은 과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러한 교민과 기도로 지금의 훈련과정이 완성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MVP선교회의 훈련은 크게 SVM(School of Venture Mission)과 고넬료 초청(단기선교여행), 그리고 VTT(Venture Team
Training) 합숙훈련으로 진행된다. 이 훈련의 틀에서 우리는 각 교회와 선교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코스도 진
행한다. 각 훈련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VM(School of Venture Mission)

SVM 훈련은 MVP선교회의 기본 선교훈련으로서 MVP선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위해 받는 훈련의 첫 번째 단계
이다. 훈련을 통해 실제적으로 선교사역을 맛보고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팀별 활동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훈련이다. 매주 과제와 선교목상, 전도실습,
지나시간 복습이 진행된다. 이는 훈련기간 동안 선교에 노출되며 인식하여 강의시간만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주 훈련부터 팀별로 구성되어 훈련기간 내내 다양한 팀별 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총 10주간의 훈련이며 두 번의 1박 2일 캠프가 진행된다. MVP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방개척선교의 전력을 워크숍과 함께
배우게 되고, 모두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선교사들의 강의를 듣게 된다. 더불어 현장에서 한국에 방문하는 전
방개척지역의 선교사들의 살아있는 간증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멘토가 되어 1대
1로 상담하며 선교비전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된다.

2. 고넬로 초청(단기선교 비전트립)

SVM훈련을 마치게 되면 고넬로 초청여행을 갈 수 있다. MVP선교회는 10개의 전방개척권역에서 활발히 사역하는 단체이다. 각 권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10일에서 3주의 기간 동안 위탁되어 비전트립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위해 급급한 짧은 여행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있는 부르심을 점검하는 시간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 여행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갖게 될 훌륭한 훈련의 하나이다.

3. VTT(Venture Team Training) 합숙훈련

2주간 합숙하는 훈련으로 SVM과 고넬로 초청여행을 다녀온 훈련생은 VTT훈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VTT를 마치면 MVP선교회의 파송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VTT는 합숙을 통해 선교사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곧 팀사역을 배운다. 무엇보다 MVP선교회의 정신과 철학을 공유하는 MVP선교회의 파송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 따라서 창의적이며 돌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벤처선교사로 훈련받게 된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선교사로 훈련되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선교사로 훈련된다.

이 훈련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현장경험이 있는 배태랑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매일 저녁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 앞에 나를 점검하는 집회의 시간, 전도실습과 팀빌딩, 팀활동, 전략실습 등을 경험하고 활동하는 시간, 현장에서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 질문하는 현장선교사들과의 만남의 시간, 비전과 사역에 대한 고민을 배태랑 선교사들과 나누고 방향을 잡고 멘토링 해주는 상담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찾아가는 선교훈련(교회와 함께 하는 SVM-i

/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학교)

MVP선교회는 지역교회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훈련을 받는 교회의 지체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교회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선교회가 진행하는 훈련이 따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선교훈련을 진행한다면 교회가 함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선교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 섭외부터 선교훈련 진행의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MVP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훈련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선교훈련 진행을 돕고자 하는데 이 훈련의 목적이 있다.

SVM-i는 SVM의 인턴십 코스로서 SVM을 수료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다.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학교는 선교기초 훈련으로서 선교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다. 모든 성도가 그 대상이며 이 훈련을 통해 교회 안에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현재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교회가 선교현장을 방문하는 단기선교여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교회와 함께 상의하여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선교훈련을 마치면,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을 소개하고 각 권역에 교회가 선교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선교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MVP선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MVP

선교사소식

출입국

4월 2일 정순달 선교사 백수림, 백수민 입국
 4월 7일 박동행 선교사 박정민 출국
 4월 10일 전빌립 선교사 입국
 정순달 선교사 백수림, 백수민 출국
 4월 12일 리사윌립 입국
 4월 24일 누사배 선교사 입국
 5월 30일 송요셉 선교사 입국
 전빌립 선교사 출국
 6월 1일 데이빗 선교사 입국
 6월 9일 신미래 선교사 입국
 6월 10일 하바나바, 홍희락 선교사가정 입국
 6월 11일 김수오 선교사 김호영, 김희영, 김수연
 입국

6월 18일 누사배 선교사 출국
 6월 21일 신여호수아, 윤사랑 선교사가정 입국
 6월 26일 박동행, 김조이 선교사가정 입국
 채열매 선교사 입국
 이만민 선교사 입국
 6월 27일 장선우, 정순달 선교사가정 입국
 6월 28일 김계원 선교사 입국
 김소니아 선교사 입국
 6월 30일 한빛, 누리 선교사가정 입국
 신길벗, 이루리 선교사가정 입국

하임

4월 1일 이은희 선교사 하임
 6월 3일 이바울 선교사 하임

2014년 3월 ~ 5월 본부 후원자

강길용(3) 강상모(3) 공유주(3) 광정인(3) 구명옥(3) 김경동(2) 김미석(3) 김선중(1) 김성규(3) 김 솔(3) 김영이(2) 김유리(2)
 김정환(1) 김종근(3) 김진철(3) 김철우(3) 김현곤(3) 김혜란(3) 김홍빈(2) 노병인(3) 박건부(3) 박미애(3) 박미영(1) 박상윤(3)
 박용신(3) 방민경(3) 방은미(1) 서연주(3) 서정희(3) 심현석(3) 연인홍(3) 오설란(3) 오세욱(3) 오요셉(1) 오희순(2) 우종기(2)
 유광훈(3) 유상범(3) 유영수(2) 윤명순(3) 윤여광(3) 이동욱(3) 이동욱(1) 이보람(3) 이상연(3) 이새암(3) 이세준(2) 이승규(3)
 이승원(3) 이영훈(1) 이유헌(3) 이유리(1) 이재선(2) 이재훈(3) 이종훈(3) 이주용(3) 이지혜(3) 이충식(3) 이관호(3) 이현경(1)
 이혜수(3) 이희정(3) 임광란(2) 안파엘(3) 전해술(3) 정소라(3) 정소임(3) 정수아(3) 정용환(1) 정우길(3) 정현실(2) 조병순(3)
 조영남(3) 조윤희(2) 조정주(3) 조희선(2) 지경준(3) 지병준(3) 진 현(3) 최웅섭(3) 최웅수(3) 한유경(2) 한정국(3) 허종현(3)
 홍성원(3) 황두환(3) 황윤이(3)

김지혜/김지은(3) 손인종/김민영(3) 정성진/은연옥(2) 하명수/홍유미(3) 한천희/최은홍(3)

후에네스산전(3) 고현교회(3) 공종훈[하영동선](3) 그소말교회(3) 꿈이있는교회(2) 남서울은혜교회(3) 물댄동산수립교회(3)
 분당천구들교회(3) 산돌중앙교회(3) 성실교회(3) 다락방(3) 엠피코퍼레이션(주)(3) 은진교회(3) 인천송월교회(3)
 조경순(ks부여)(3) 집그릇터(3)

후원방법

1. 본부 계좌 국민 012501-04-182812 MVP선교회
2. 전화신청 070-8260-5518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저희 본부로 연락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후원 늘 감사드립니다.



MVP선교회의 새소식입니다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립니다.

3월 20일에는 ‘캠퍼스주관/고넬료팀 보고 선교의 밤’으로 말씀(김흥빈 선교사), 고넬료팀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MVP선교회 15주년 감사의 밤(선교부흥회)’으로 말씀(제이콥리 선교사), 선교부흥기도회(한수아 본부장)가 있었습니다.

5월 15일에는 ‘인도차이나/ 선교중국 선교의 밤’으로 말씀(이길 선교사), 선교중국 나눔(박수보 선교사)이 있었습니다.

2. SVM 29기 개강

2014년 하반기 SVM 훈련이 9월12일에 개강하여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9기 SVM 훈련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VTT 9기 훈련

2014년 6월23일~7월11일까지(2주간) 장기·단기선교사 합숙훈련인 VTT가 진행됩니다.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훈련생들의 전략발표 등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디브리핑 위원회

4월 12일 제이콥사본박 선교사 가정과 6월 14일 박수보 선교사님이 디브리핑에 참여하셨습니다.

5. 전방개척세계선교 대회

MVP선교회는 4년마다 해외 선교사, 국내 비거주 선

교사, 본부 사역자, 본부 이사님들이 함께 모여 총회를 갖습니다. 올해는 ‘3M 전략과 함께 하는 교회개척 운동’이라는 주제로 2014년 7월 8일-11일(3박4일), 속초 추암하우스에서 ‘전방개척세계선교대회’로 모입니다. 아울러 4~50여명의 MK들을 위한 MVP MK수련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6. 쿠르드선교 대회

리서치사역개발원에서 2014년 3월30일~4월16일 터키와 이란 쿠르드족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쿠르드를 위한 30일 기도책자와 쿠르드 역사, 쿠르디스탄 관문도시, 쿠르드 선교전략에 대한 책자를 8월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쿠르드선교대회를 엽니다(일시: 2014년 8월 21일 오후 3시, 장소: 남서울교회)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7. 금식기도회

4월(3일), 5월(1일), 6월(5일), 7월(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8월(7일) 9월(4일), 10월(2일), 11월(6일), 12월(4일)입니다. 매주 첫번째 주 목요일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는 수양관 등 외부로 나가서 진행될 예정이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에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8. 중보기도팀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기중보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월 2째주와 4째주 목요일 오전 MVP본부에서 진행되며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랍니다(02-703-1215).

글로벌교회개혁자학교

(GPS, Global Church Plater School)

“교회를 낳는 교회의 비전”

“전 세계를 바라보지만 작은 지역교회를 세우는 교회”

“비전은 크지만, 구조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운동”

1. 모집인원 : 10 명
2. 학기일정 : 2014.8.25~2015.2.24(현장 실습 : 2015.1.12~2.9 / 수료식 : 2015.2.23~24)
3. 학비1인 : 60만원 / 부부 : 110만원(※선교여행 & Activity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지원대상 : 국내나 해외에서 1~2년 이내에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 부교역자일 경우 담임목사의 추천 필요)
5. 원서마감 : 2014년 7월 30일 까지
6. 접수비 : 30,000 원 / 부부 : 50,000원(접수비 계좌 : 신한 517-04-299546 김홍빈)
7. 접 수 처
우편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MVP 선교회 캠퍼스원 GPSchool 앞
이메일 : calling0810@gmail.com / cmm@gmail.com
8. 원서다운 : MVP선교회 홈페이지(www.mvp.or.kr)
9. 연락처 : H_P_010-3336-9860 / 사무실_070-8235-0014
10. 장소 : MVP선교회 & 글로벌비전교회

주관 : MVP선교회 교회개혁&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 협력 : 글로벌 비전교회

리서치 심화 훈련과정

1. 훈련목적 :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리서처 양성
2. 훈련기간 : 2014년 9월-2015년 2월(격주, 12회), 현장리서처 2-3주
3. 훈련방식
 - ~ 책/자료 읽고 리뷰, 토론, 분석
 - ~ 강의 듣고, 토의 및 평가
 - ~ 참여하면서 배우는 방식
 - ~ 문헌조사 / 자료 분석은 별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매주 과제를 통해 훈련
 - ~ 기존 리서처 분석(우리가 진행한 것 외에 지역연구 자료 비판적 분석 필요)
 - ~ 세계정세 안목을 넓히는 훈련 / 연구, 실질적 경험 위주
 - ~ 기존 연구 수행했던 내용 평가 분석
 - ~ 연구원 양성(현장과 연결되는 리서처 팀 / 그룹)

강의내용

리서처선교의 선교학적 기초 / 리서처선교의 사회과학적 기초 / 리서처선교의 분석틀 연구
리서처 연구 설계 / 문헌조사방법 및 사례연구 / 현지조사방법 : 문화기술적 인터뷰 및 사례연구
현지조사방법 : 참여관찰 및 사례연구 / 자료정리방법 / 동원자료 작성 / 리서처 팀 운용
MVP 권역별 리서처 설계 및 연구주제 토의

4. 문의 : 02-703-1215(리사원 훈련 담당자)

창체적인 선교요구

최초의 인류에게 부여하신 문화명령 순종

비즈니스선교사 및 전문인사역자 양성 필요

현 시대의 선교동향에 맞는 전략적 선교

V-SCHOOL

벤사완 훈련학교.2014

일시 _ 1기 : 2014년 3월 ~ 12월(토요일 AM10~PM2:00)

2기 : 2015년 3월 ~ 12월(토요일 AM10~PM2:00)

장소 _ 굼터(굼이있는교회 교육관, 6호선 광흥창역 3번출구에서 직진- 세븐일레븐 건물 2층)

venture

훈련목표

- (1)직장생활 : 모든 지원자가 실제 비즈니스 세계 체험 및 어려움 극복
- (2)자기주도 학습 : 10권의 필독서를 통한 평생학습의 실천
- (3)오거나이어 사용 : 목표관리, 시간관리를 생활화 통해 생산성 향상

강의

O.T캠프 / 비전,사명,전략 / 목표관리와 시간관리 / 재정관리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 / 크리스찬경영 /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미션의 실제 특강

등록비 5만원, 월 3만원(총35만원)

국민은행 585401-01-039574, 예금주 : 구영삼

문의 MVP선교회 02-703-1215,

kooysam@gmail.com(www.mvp.or.kr)



왜 벤처선교인가?

이론과 현장의 만남
현장 선교사님들의 실제적 강의
개인의 은사를 통해 함께하는 팀 선교
현 시대의 선교동향에 맞는 전략적 선교

SVM

School of Venture Mission

벤처선교훈련학교_2014

21세기 선교상황은

우리에게 개척, 도전, 모험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벤처선교입니다.

입시_28기 : 3월 14일~5월 17일(OT캠프 3월 14~15일/선교캠프 4월 25~26일) 토요일 AM 9:30~PM1:30
29기 : 9월 12일~11월 15일(OT캠프 9월 12~13일/선교캠프 10월 17일~18일) 토요일 AM 9:30~PM1:30
장소_MVP선교회 서울본부 벤처홀(6호선 망원역 2번출구, 도보로 3분)

훈련비_25만원, 개강 2주전 선등록 시 20만원(국민은행 762301-04-191966, 예금주:서울SVM)
문의_MVP선교회 02-703-1215, mvpok01@gmail.com(www.mvp.or.kr)

강의

OT캠프 /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 미전도종족선교 / 리서치선교(RM) / 캠퍼스선교(CM)
비즈니스선교(BM) / 선교캠프 / ACTION DAY(일일 선교문화체험) / 선교동원 / 파송식

강사

한수아(MVP선교회 본부장), 신동우(MVP선교회 이사장), 조명순(한국형선교개발원 대표)
최광명(전 METI 원장), 김홍빈(MVP캠퍼스사역개발원장), 김인애(MVP리서치사역개발원장)
구영삼(MVP벤처사역개발원장)



고넬로의 초청(여름, 겨울 선교여행) 10개 전방개척권역에 선교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인도차이나(미얀마, 베트남), 중국무슬림(중국신장), 중국티벳/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페르시아1(이란), 페르시아2(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초승달(요르단, 레바논)
북아프리카(이집트, 모로코), 아라비아반도(오만), 북인도

